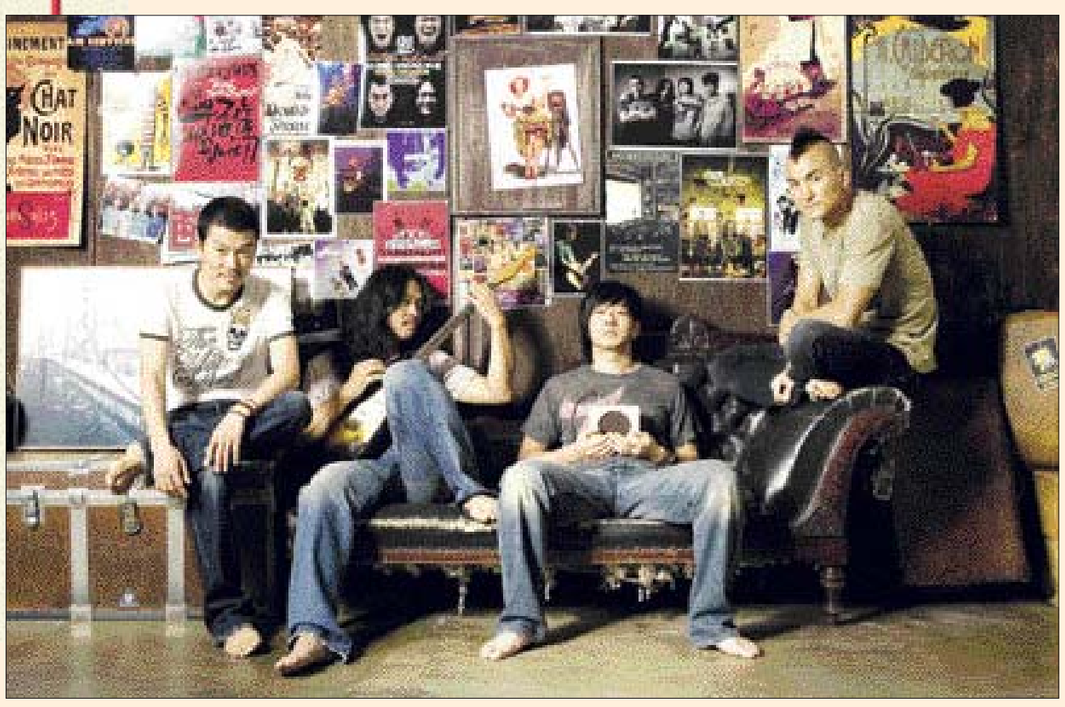
"가을 우체국 앞에서…"



오는 11월 29·30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갖는 YB윤도현 밴드. 사진 왼쪽부터 박태희(베이스), 허준(기타), 윤도현(보컬), 김진원(드럼).

윤도현 밴드 광주서 락&발라드 무대

열정적인 연주와 패기 넘치는 보컬

내달 29·30일 광주문예회관 공연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 사운드 YB 윤도현 밴드(이하 YB)가 광주 팬들을 찾아온다.

오는 11월 29일(오후 7시30분)과 30일(오후 5시) 두차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갖는 YB는 이번 무대에서 록음악과 발라드를 아우르는 주옥같은 히트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해마다 전국 투어 공연을 통해 관객들을 열광시켜온 YB는 3년여만에 갖는 이번 광주 공연에서 지난 2006년 선보인 7집 'Why be' 이후 오는 11월 발매 예정인 제 8집 앨범 수록곡 중 일부도 선사할 계획이다.

YB의 출발은 1995년 보컬을 맡고 있는 윤도현의 1집 앨범 '가을 우체국 앞에서'('타잔', '사랑 투', '너를 보내고' 등 수록)부터 시작된다.

이후 윤도현을 비롯해 베이스 박태희, 드럼 김진원, 기타 허준으로 팀을 꾸린 YB는 오랜 기간 멤버 교체 없이 활동하며 지금까지 윤도현과 YB의 이름으로 모두 7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했다.

YB는 앨범을 내놓을 때마다 '박하사탕', '내게 와줘', '잊을게' '이땅에 살기 위하여'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으며 특히 '돌고 돌고 돌고', '그것 만이 내세상', '탈춤', '담배가게 아저씨' 등을 새롭게 해석한 앨범 '한국 록 다시 부르기'는 음악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보컬 윤도현의 개별 활동도 돋보인다. 2005년 그룹 활동과 별개로 솔로 앨범을 발매한 윤도현이 발표한 '사랑했나봐'는 온 오프라인 차트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 2006년 제 3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윤도현은 가수들이 가장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꼽는 KBS TV '윤도현의 러브레터'와 KBS FM '윤도현의 뮤직 쇼' 등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YB가 무엇보다 음악팬들을 사로잡는 건 바로 화려한 세트와 최고의 음향, 열정적인 연주와 패기 넘치는 보컬이 어우러지는 라이브 공연 덕분이다. 해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매력을 발산해온 YB는 지금까지 3장의 라이브 실황 앨범과 DVD를 발매하기도 했다.

또 한국에서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 없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며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YB는 일본, 미국 등에서 투어 공연을 가졌다.

특히 영국 등 유럽 4개국 투어 공연 모습은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가족의 탄생'을 만든 김태용 감독이 다큐멘터리 '온 더 로드 투'로 제작, 화제가 됐었다.

티켓 가격 8만 8천원, 7만 7천원, 5만 5천원. 문의 1588-0766. 062-220-06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국제학술회의

현대미술 새로운 담론 모색

29일부터 중국 북경

미술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인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국제학술회의가 서울에 이어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북경 중앙미술학원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 중국 행사는 '국제 시민사회 형성과 공공문화영역'을 주제로 오쿠이 엔위저 총감독 등이 참석해 현대 미술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하게 된다. 오는 28일에는 학술회의에 앞서 사전리셉션을 갖고, 토론 의제 등을 논의한다.

지난 25~26일에는 국제학술회의 국내 행사로 서울 아르코미술관에서 '8008 한국 현대미술의 현실과 발언, 그 비평적 가능성의 모색'을 공개심포지엄을 열었다. '8008'은 1980년부터 2008년을 의미한다.

공개심포지엄에서는 시각예술비평지 'BOL'의 박소현 편집위원의 사회로 작가 박찬경씨, 미국 메사추세츠대학 앰허스트 미대 문영민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 참석자들은 '비평적 영역의 오연 혹은 깊은 구조-역사·기억·정치'와 '자본의 정치학과 미술시장에의 비평적 개입'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개심포지엄을 위해 임근준, 임민욱, 서동진, 김장언, 김범씨 등 미술관계자와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등이 지난 8월29일부터 5회에 걸쳐 게릴라 살롱(Guerilla Salons)을 가졌다. 이번 게릴라 살롱에서는 서울지역의 작가 작업실과 인사미술공간 등지에서 전문가들이 미술인들과 각 소주제를 가지고 현대미술을 논의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일 현대도자기 교류전 열린다

11월3일까지 시립민속박물관

작가 한국 10·일본 10명 참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고베비엔날레 재단과 함께 오는 11월3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한일 현대도자기 교류'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고희숙, 김병율, 김장용, 모인순, 박재연, 이성한, 이정석씨 등 한국 작가 10명과 나가사와 에이신, 오구라 켄, 이치노 토시나리 등 일본 작가 10명이 참여해 37점의 도자기를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손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정유재단 당시 왜군은 남원성에 있던 심당길(1598년·선조 31년) 등 도공 80여명을 끌고 갔고, 심당길이 가고시마 현에서 '사쓰마 도자기'를 빚어 일본도자기의 원류가 됐다. 이후 심당길의 후손들은 심수관가(沈壽官家)라고 불리게 됐으며 계승자인 '친쥬칸'(沈壽官)을 뽑았다. 이번 전시에는 15대 친쥬칸이 참여해 가문의 예술혼을 선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성악가 모임 뮤즈 '가을로의 초대'

29일 광주문예회관

조수현 교수

이경미 교수

지난 1995년 결성 후 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 모임 뮤즈(회장 조수현 광신대 교수)가 32번째 정기연주회를 마련했다.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가을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 레퍼토리는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 중 '달의 노래',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푸치니의 '라 보엠' 중 '내 이름은 미미', 르하의 '즐거운 과부' 중 '고요한 입술'과 이수인곡 '달', 나운영곡 '아 가을인가', 이흥렬 곡 '코스모스를 노래함' 등 유명 오페라아리아와 아름다운 한국가곡이다.

출연자는 소프라노 김민희·이인숙·김혜미·윤혜정·이계화·이정미·장공선·김지영, 베이스 최철, 메조소프라노 이경미, 테너 박성은씨 등이다.

피아노 반주는 김은희·박정신·조은진·박지현씨 등이 맡았으며 플루티스트 백영경씨와 이현지씨가 도플러의 '환상곡'을 선사한다.

문의 011-646-809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자동차를 타고 남쪽으로 5시간 가량 달리다 보면 구차(Gucha)라는 마을이 나온다. 말이 마을이지 주민이라고 해야 1천여 명도 채 안 되는 두메산골이다. 보여줄 것이라고는 산비탈에 듬성듬성 들어선 가옥들이 전부여서 평소엔 외지인 구경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매년 8월(둘째 주 수요일~일요일)만 되면 관광객들로 시끌벅적해진다. '트럼펫 축제(Gucha Trumpet Music Festival)'때문이다. 47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유럽, 미국, 아시아 등에서 약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번듯한 공연장 하나 없지만 누구라도 길을 걷다 트럼펫을 불면 그곳이 곧 콘서트홀이 된다. 축제기간 동안 구차는 일류 트럼퍼 연주에서부터 장난감 트럼펫을 입에 문 꼬마들의 연주까지 트럼펫 소리로 넘쳐난다.

유럽의 오지인 구차가 관광지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유일의 '트럼펫 도시'이기 때문이다. 남동부 유럽의 발칸반도 중앙에 위치한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혁명, 제1·2차 세계대전 등 '바람 잘 날 없는' 역사를 거쳤다.

이때마다 세르비아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준 것은 작은 금관 악기였다. 19세기 초 오스만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세르비아의 조지 워싱턴'인 밀로스 오브레비치는 '단결만이 세르비아를 구한다'며 1831년 트럼펫 군악대를 창설했다.

그로부터 세르비아인들은 '드라가세보(Dragacevo)'로 불리는 전통 트럼펫을 끼고 살았다. 자녀의 출생뿐 아니라 세례나 결혼, 추수, 장례 등 모든 중대사에는 늘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졌다. 1961년 지역과 주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소박하게 출발한 구차의 트럼펫 축제는 세계인들이 한번쯤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성장했다.

구차의 트럼펫 축제를 월드 페스티벌로 이끈 일등공신은 차별화된 콘텐츠다. 세르비아인들의 고단한 삶과 함께 해온 트럼펫의 유구한 역사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약 1천10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린다. 광주·전남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비엔날레, 김치축제, 남도음식 큰잔치, 충장로 축제 등 줄잡아 60여 개(문화관광부 통계)가 열린다. 하지만 상당수 축제에는 노래자랑과 연예인 초청이 빠지지 않고 판매하는 기념품과 음식도 엇비슷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차별화 전략으로 내용보다는 '규모'에 올인 하기도 한다.

축제의 도시 구차는 트럼펫 하나만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유럽의 3대 축제로 자리 잡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맥주축제) 역시 가장 큰 경쟁력은 음악과 연극, 맥주라는 단일 주제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지역성'이 '콘텐츠가 있는 축제'로 키운 것이다.

축제의 계절 10월, 구차의 트럼펫 축제는 때론 '작은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